

CONV/RGENCE

#2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완벽한 인생



RIOT FORGE

오브라이언 · 스미스 · 윌포드 · 브라이트빌

Art by Corey Lewis
22

필트오버와 자운

구조 측면도

필트오버와 자운, 이 두 도시는 첨단 기술 발전의 중심지입니다.

위쪽에 자리한 필트오버는 모든 것이 정밀한 시계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깔끔하고 부유한 기술의 천국 같은 곳이죠.

그 아래 위치한 자운은 필트오버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첨단 기술의 어둡고 불쾌한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무법 천지이기도 하지만 덕분에 누구나 자신의 꿈을 제재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바로 위쪽에서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웃 필트오버의 그늘에 눌러 있지만, 자운인들은 확고한 의지와 독창성으로 삶을 버텨냅니다. 지하도시 자운의 짙고 음울한 독성 스모그를 견디며 더 좋은 삶을 찾고, 그런 삶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싸웁니다.

- 제이스의 작업실

필트오버
공요

최상층

중간층

- 승리 축제
- 반 클레그 산업

자운 상층부
음우우 공요

- 에코의 아파트
- 잃어버린 아이들의 은신처
- 빅토르의 오래된 실험실

지하동굴

아트
Eric Canete



에코는 자운의 소년 발명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운**은 첨단 기술에 능숙하면 보다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죠. 에코의 발명품 중 최고는 단연 **Z-드라이브**입니다. 주변의 **시간을 되돌려** 몇 초 전의 일을 되풀이할 수 있죠. 에코는 이 Z-드라이브를 써서 어떤 일이든 자기 마음에 맞게 고쳐놓을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실수에서 인생이 걸린 문제까지, 그 어떤 것도요.

하지만 시간을 입맛대로 조작하다 보면 자신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결국 에코 주변의 세계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게임 <시간/교차(**Conv/rgence**)>의 앞선 이야기 격인 이 코믹에서, 에코는 시간을 되돌려 몇 초 후의 미래를 마음대로 바꾸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여행이 주는 새로운 기회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개입하지 않고 시간이 그냥 흐르게 둔다는 것은 에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CONV/RGENCE

시간 교차
리그 오브 레전드 이야기

완벽한 인생

존 오브라이언

글

디트리히 O. 스미스

레이아웃

디트리히 O. 스미스 (1-4편)

크리잼 자모라 (5편)

펜슬 작업

디트리히 O. 스미스 (1편)

윌리엄 윌포드 (2, 4편)

크리잼 자모라 (3, 5편)

잉크 작업

카일 브라이트빌

채색

Studio RAM

레터링 (유럽 언어)

Comiccraft 의 타일러 스미스

레터링 (유럽 언어 외)

코리 루이스

표지 아트

사브리나 퍼치

카이트 게리 (1-3편)

에디터

몰리 마한

코믹 내러티브 총괄

메리 검포트

감사한 분들

© 2023 Riot Games, Inc. RIOT FORGE, CONV/RGENCE: A LEAGUE OF LEGENDS STORY and any associated logos are trademarks, service marks, and/or registered trademarks of Riot Games, Inc. Developed by Double Stallion.



자운 지하

생선 맛있게 먹어,
와이어스.

발밑에 화공
웅덩이 조심하고!

아, 이런.

철벽

어이, 노땅! 들고 있는
거 뭐야? 좀
보여주실까?

그럴 생각은
없는데.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야?

아, 이런... 미안하네,
누군지 못 알아봐서.
당장 여기서 나갈--

형씨는 태도가
글러먹었다
이거야.

이봐!



뭐 문제라도 있어?

이 노인네가 길을 못 찾아서 도와주고 있었지.



됐으니까 가봐.

앞으로는 조심해서 다니라고.



아들, 여기까지 웬일이니?

아빠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녔어요. 혼자 장 보러 가시면 안 되잖아요.



네 엄마는 일하러 갔고, 난 배가 고프고. 그러니 어찌겠냐.

그래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해답을 찾았죠!



눈 증강체예요. 아빠 눈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눈이 다시 잘 보이게 되면 우리 아무 걱정--

아니다.

아빠,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건
무료예요.

자운에서 먼저
시험해 보고 안전하면
필트오버 부자들에게
팔 거래요. 제가 직접
가봤--

아니라니까. 난 그런 것
안 한다.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빠
눈이...

그래.
내 눈이야. 나는
태어난 대로 살다가
죽을 거다. 기계가
되고 싶지 않아.

알겠니?

철벽

아빠... 방금 화공
강패들한테 당할
뻔하셨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자운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지--

무슨 일? 내가
죽는 일?
아들아, 인생은
원래 그런 거란다.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면요?

너 같은 아이들은...
만사가 잘 돌아가는
기계 같겠지.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시계처럼 딱딱 들어맞지
않아. 놀랄 일도 많고,
불시에 안 좋은 사건이
닥치고... 그러다 잠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면서
사는 거다.

그게 인간의
삶이야. 태엽
인형이 되어서는
절대 못 느끼는.

네... 뭐.

반 클레그 공업. 이틀 후.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군.

대유행이야, 빅토르. 자부심을 느끼게나.

나도 이 기술을 처음 발명했을 때는 자부심을 느꼈었지, 반 클레그.

하지만 이젠 애들 장난감 취급이야. 육체를 포기하지 않고 장식품 정도로 여기니.

겨우 이 정도 개조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건가?

빅토르...

자넨 영리한 친구야. 기계를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사람**에 대해선 배워야 할 게 많군.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폐품더미**가 되고 싶어하지 않아.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그... **자네**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네.

미안한 말이지만.

겁쟁이들뿐이야.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히고, 용기가 없어서 **불완전한** 몸을 버리지 못하지.



나처럼...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놓고, 형태를
 버리고 기능을
 취하면 될 것을.
 내 영광된
 진화를 보여주려
 했었는데...



“팩토리우드의 화공 유출 사건
 기억하나?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아무
 치료도 못 받고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몸을 주었지.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완벽한 신체를...



그런데 그 녀석이 나타나서
 모든 걸 파괴해 버렸어.”



제이스
 말이군?

필트오버의 기린아,
 영웅으로 칭송받는 놈.
 하지만 그날 놈은 수백 명을
 죽이면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했어.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였는데.

그래, 알겠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야.
자넨 그 사람들을 구하려
했던 거지.

하지만 자운의
다른 이들은...?

자운인들은 자네가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고
강통 인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소문만 듣고
있지.
그래서 겁을
먹는 거고.

대체 왜 완벽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사고나 질병을
겁내지 않아도 되는 삶인데.
자운은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보게 빅토르... 자네가
나와 손을 잡은 이유를
생각하게. 왜 내 이름이 이
건물에 박혀 있는지를...
자운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잖나.

그러니 자네도 나를
믿어 주게. 지금은
자네가 눈에 띄면 안
되네. 숨어 있게.

사람들이 아직은
영광된 진화단이나
인간성을 버리라는
말이 너무 과격하다고
여기니까 말야.

자네에겐 좋은
아이디어가 잔뜩
있지.

그러니 나처럼
옥석을 가려줄
사람만 옆에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에코의 아파트 건물. 자운 지하.

...난 증강체 따위는 달지 않을 거다. 발 한 짝도, 발톱도, 아니 뭐든 안 돼. 이 얘기는 그만 하자.

아빠 말대로 아빠 인생이지만...

...아빠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면 곧 돌아가실지도 몰라.

아빠를 설득해야 해.

아빠...

지글지글

이런 일에 Z 드라이브를 쓸 줄은 몰랐는데.

푸다다다다



그 얘기 또 할 거라면 아무 소용없다.
일단 이유라도 들어주세요...



화북



자운은 위험한 곳이에요. 개조체를 달면 안전하잖아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제 그만하자.

지글지글



아빠... 정말 죄송해요.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셨어. 이런 상태에선 생각을 바꾸시게 할 방법이 없어.

죄송하다니, 뭐가?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다른 말로 설득해야 해.

부다다다

1차 퇴감기 직후...

...하지만 결국 혼자서는 거동도 못 하시게 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

아니, 그 정도 일로 금속덩이를 달 순 없다. 내겐 가족이 있잖니.

이제 다른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5차 퇴감기...

...그럼 엄마랑 저는 어떡하죠? 아빠를 위해 무슨 일이든 아등바등 해야 한다고요.

나도 네 할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보살펴 드렸다. 그런 게 인생이야.

이제 식탁에 수저 좀 놔주겠니?

이거야!

6차 퇴감기

...개조체가 싫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아빠가 일을 못 하시니 저랑 엄마가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할 게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아... 그럴 필요 없다. 그냥... 눈이 안 좋은 것뿐이야.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아빠 대신 일을 해야죠. 엄마는 부업을 알아보시고, 저는 화공 남작들 밑에서 일하면 돼요.

아니야. 그... 그래선 안 되지.

지글지글

아빠, 아빠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개조체가 그렇게 내키지 않으시다면--

알겠다, 애야... 개조체를 달아 볼게.

내 방법이 먹혔어.

그래요, 아빠.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젠 내 선택을 감내하기만 하면 돼.

반 클레그 공업.
이틀 후.



내가 그래야 하는
것인가?



“눈에 띄지 말고,” 지켜만
봐야 하는가?



필생의 역작이 한때의
유행 취급을 받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아이들 놀이의 도구...



백치들의 신조가
되는 것을...



거기 형제님!

영광된 진화단이 전하는
좋은 소식을
들어보셨는지요?



영광된 진화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군.

진화된 형제님, 저는 압니다. 위대한 빅토르님께서 곧 돌아오십니다!



그림자 속에서 일어나 약속을 지키러 오십니다.

모든 인간을 결함 없는 존재로 만--

아니.



츠풍츠풍

우역!



그럴 일은 빅토르의 혁명이 남긴 것이 고작 네놈들이라면, 빅토르는 실패한 것이다.

너희들은 완벽이 아니라 한심한 종자들이니까.



우리 지도자님도 모자라 선지자님을 욕해?

혼을 내주지.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완벽하다!



zzzzzzzz

크악!



우리는 완벽...



모두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덤벼라.
네놈들이 얼마나
완벽한지 봐주지.

시
우
우
우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그분이...
돌아오셨다.



예언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일어나라. 난
선지자 따위가
아니다.

나의 이상을 그런
공허한 말로
격하하지 마라.



황공하오나,
빅토르 님의
이상은 많은
이들을
깨우쳤습니다.

부디...
저희가
만든 것을
보아주시지
요.

잃어버린 아이들의
은신처 자운 지하.

드디어
행차하셨네.

대체 어디 있었어?
렘이랑 찬시가 괴상한
발명품을 만드는데 네
머리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야.

미안. 부모님 일
때문에 정신없었어.

아빠는 나를 믿어주셨다.

걱정 마. 우리 같은
장인들은 인생을 편하게
하는 물건을 만든다는
이상이가 있거든.

맞아. 너도 이젠 우릴
구한다고 Z-드라이브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가 요런 특급
장치를 만들고 있거든!

애들도 나를 믿는다.

이거 봐... 벽타기 전용
부츠야!

...아직은 그냥
부츠에 불과하지만.

이건 로켓 무릎
패드야!

어... 아직은 그냥 무릎
패드지만. 그러니까 에코
네가 로켓을 만들어서
달아 주라, 응?

애들은 나처럼
되고 싶어한다.

음... 그거...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야.

하지만 이들은
모른다...

싫다 이거구나.



아냐, 그냥 좀... 일단 그 부츠가 벽에 붙으려면 아주 강력한 접착제가 있어야겠지.

그리고 무릎에 로켓을 달고 날았다가는 떨어지기 딱 좋아.

생각해 봐. 뭔지도 모르면서 아무 기계나 함부로 몸에 달았다가는--

콰아잉



나 개조체 달았다!



스키즈?

맙소사.

머리 그거 대체 뭐야?



그냥 업그레이드 살짝 한 거야. 반 클레그인가 하는 아저씨가 공짜로 해줬어!

아니... 이러면 안 돼, 스키즈. 원래 머리는 어쨌어?



옛날 머리도 괜찮았지. 하지만 그런 말랑한 머리로는 뭘 들이받지도 못하잖아.

스키즈, 별 이유도 없이 개조체를 다는 건 안 돼.

인생은... 잘 돌아가는 기계가 아냐. 인간은 결함이 있게 마련이고, 결함이 있는 게 인간이야--

끼익



그럼 넌 결함이 뭔데, 에코? 너, 너는 뭘 잘못하면 Z-드라이브로 되감아서 바꾸면 그만이지잖아.



그렇지! 너 지금 이 대화를 되감기해서 내 말을 멋지게 반박할까 생각 중이지?

그만 해, 스키즈. 에코는 그렇게 치사한 짓은 안 해. 진짜로 필요할 때만 Z-드라이브를 쓰겠다고 약속했잖아.

내 결함? 난 조종하고 싶어하지. 내 인생, 내 친구들, 아빠까지도...

그렇지, 에코?



이게 있는 한 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릴 뿐이야.



에코... 어디 가?



됐고, 내가 박치기로 이 탁자 박살내는 거 보고 싶은 사람?

저요!

영광된 진화단 공동체. 자운 하부.

여긴... 내 실험실이
있던 곳이군.

네. 그 잿더미 위에
저희가 유토피아를
건설했습니다.
오늘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요.

이 광기는 대체
뭐지?

광기가 아닙니다.
저희 그저 빅토르
님의 뜻을 이었을
뿐입니다.

선지자여, 보십시오.
저희는 인간의 육신을
뛰어넘어 진정한 완벽함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에는 질병도,
굶주림도, 고통도
없습니다.

원하시던 모습
아닙니까?

천만에.

내 이상은... 바보의 꿈에
불과했다. 결국은 두려움과
자유 의지가 창궐하고,
진정한 완벽은 절대--

콰아아앙

화공 파이프
화재로군. 진화하려면
몇 주가 걸리겠어.

모두
대피해야 해.

빅토르 님, 본인의
이상을 믿으셔야
합니다. 보시지요...

위잉

위이이이이잉

“내가 쓰던 전송기...”

“아, 위대하신 분. 당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잔해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저들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된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기 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불을 끄고 있습니다...”

“... 몇몇은 희생되어 사라지더라도요.”

“아름답군. 이렇게 엄밀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없다니...”



아주 완벽해.
잘 해냈군.

아닙니다, 빅토르
님께서 그 영광된
이상으로 해내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친히
완성을.



내가 바보는
아니었나
보군...

"...완벽은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완벽을 성취할 수 있다면...

회익



내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자는 없으리라."



다음 편에 계속...